

# 국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趙潤濟 (서강대학교 교수)

우리 국민이나 언론은 매일 매일의 國內事에 집착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단기적인 경기순환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도 결국은 우리 주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게된 과정 뿐 아니라 위기 이후의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의 회복과정도 국제금리 인하와 엔화의 절상, 그리고 미국 경기호황의 지속 등 국제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기순환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의 우리 경제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더라도 국제경제 환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였다.**

전후 냉전체제는 우리 민족에게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 등 가슴아픈 경험들을 남겼으며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통일이라는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에는 도움이 되었다.

해방이후 한 동안 미국의 원조가 우리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미국이 우리와 무슨 역사적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는가? 바로 냉전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전략적 위치의 최첨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우리가 초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문맹률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나, 그나마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요인이 있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이나 조세행정 능력으로 보아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와 비슷하게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동남아국가들이나 남미국가들, 혹은 아프리카국가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이다. 이는 다시 1960년대에 우리가 공업화를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바탕이 되었다. 우리 나라는 이스라엘과 베트남을 제외하면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군사·경제 원조를 받았던 나라이다. 또한 USAID, USOM 등 미국 원조당국을 통한 경제정책 자문은 1950년대 후반 및

1960년대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었다고 볼 수 있다.

1950~1960년대에 경제발전을 시작한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우리 나라가 당시 국내저축률이 가장 낮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자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외자조달을 할 수 있었고 외채의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50~1960년대와 같이 국제 민간자본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당시 상황에서 외채를 조달하여 국내산업에 투자할 수 있었던 개도국들은 흔치 않았다. 우리 나라는 당시 냉전체제하에서 미국,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일찍이 이들 두 나라로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를 조달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또한 월남전은 많은 우리 젊은 목숨들의 아까운 희생을 가져왔으나 우리 경제에는 월남특수와 브라운 각서에 의한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 정부조달 우선배정으로 건설과 수송 등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현대의 태국 고속도로 건설, 한진의 월남전 군수물자 수송 등이 바로 월남전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며 우리 나라의 해외건설산업, 해외수송산업의 길을 열었다. 월남참전을 대가로 다시 늘어난 미국의 군사원조는 또한 우리 나라의 제한된 세수에 따른 제한된 예산의 국방비 지출확대를 줄이고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월남전 종식과 더불어 시작된 제1차 석유파동은 우리 경제와 전세계 非산유국들의 경제에 타격을 주었으나 곧이어 시작된 중동건설 붐은 월남전을 계기로 얻은 해외건설 노하우를 중동건설 특수로 이어지게 하였다. 나아가서 중동으로 흘러 들어간 오일달러의 유로뱅크를 통한 환류는 그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던 우리 나라가 기자재 수입에 필요한 막대한 외자를 조달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짧은 시일내의 중화학공업 건설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물론 그 당시 우리 경제가 중화학공업에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한 것이 옳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당시 오일달러의 환류에 의한 유로뱅크 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없었다면 외자조달의 한계로 우리 나라의 중화학공업 발전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80년대 초 유로달러 시장에서 막대한 차입을 했던 나라들이 모두 외채위기를 겪었으나, 우리 나라가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혹은 필리핀처럼 지급불능 상태로 가지 않고 그나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제가 이들 보다 더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출의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냉전체제 하에서의 미국,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필자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미국원조, 월남전, 혹은 석유과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난 반세기의 우리 경제발전의 과정을 냉철히 돌아보아야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다 바르게 잡아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물론 대외환경이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던 것도 아니며 우리 경제의 남다른 성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인도 아니었다. **우리 경제의 성공을 결정지었던 보다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로부터 최적, 최대의 이익을 우리 경제가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또 상황이 변화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적절히 수정하며 추진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초, 중반 당시 세계 어느 개발도상국들 보다 훨씬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금리개혁, 세제 및 세정의 개혁, 환율 및 수출입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각종 정부조직과 민간기구들의 개편(institutional reform)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개편의 핵심은 바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과 국제경쟁력 제고였다. 이는 전후 GATT 체제하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이며 그것이 향후 약 20~30년간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제2차 석유과동 후 1980년대 초반, 세계 경기불황과 중화학부문의 과잉투자로 인한 실업확대 그리고 대폭적인 환율절하로 인한 물가압력 속에서도 긴축재정에 의한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 역시 만만한 의지로 이를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은 아니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이를 활용하려 한 것이 우리 경제가 1960년대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오늘날의 OECD 가입국 수준까지 오게 된 주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절한 경제정책 및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유리한 대외환경이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가 또한 아시아지역에서 오늘날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1970년대 말까지 중국경제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도 주요 요인이 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중국보다 일인당 국민소득 수준에서 10배가 훨씬 넘고 일부 제조업 생산 기술면에서 크게 앞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중국에 비해 약 20년 앞서 경제를 개방하고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2천년대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 본다면 그 동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유리한 입지도 많이 사라졌으며, 또한 지난 약 10여년간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점은 더욱 깊게 되었다.

지금 세계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지구촌화 하고 있으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역장벽은 허물어지고 있다. 가령 중국의 농산물, 공업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중국에 비해 임금이 10배가 훨씬 넘는 우리 경제에서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설 땅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중국과 우리 나라의 기술수준의 차이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구조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구조조정을 단순히 기업과 금융의 부실처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경제의 진정한 구조개혁은 바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품의 축소, 실질임금의 재조정, 고급인력 배출의 확대와 이를 위한 부동산, 노동, 교육, 조세제도 등 거의 전 경제분야에 걸친 폭넓은 개혁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경제 속에서 지금과 같은 우리 경제의 상대적 입지도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반세기에 비해 앞으로의 반세기의 국제환경은 우리 경제의 상대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데에 있어 훨씬 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냉전체제는 이미 무너졌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추구가 국제정치의 최우선 순위를 갖게 되었다. 그리

고 중국이 깨어났고, 동구라파가 깨어났고, 동남아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이들보다 앞서 있는 지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적자원, 인력의 전문성이, 공공기관과 기업운영의 효율성이, 나아가서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가령,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우리 경제가 급속히 국제화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先發개도국으로서의 위치를 그나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는 중국이라는 큰 파도에 곧 묻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3년간 외환위기를 맞고 IMF 프로그램하에서 그나마 많은 제도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은 주로 금융위기 극복과 해외의 신뢰도 회복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재 처한 국제환경과 우리가 서있는 지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 스스로의 비전에 의한 보다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자약력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1976)  
美 Stanford대학교 경제학 박사 (1984)  
세계은행 Economist (1984~1989)  
국제통화기금(IMF) Economist (1989~1992)  
美 Georgetown 대학교 객원교수 (1990~1991)  
세계은행 Senior Economist (1992~1993)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1995~1996)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자문관 (1995~1997)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997~현재)

서강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소장 (1997~ 현재)